

## "Jutaek" Houses of Korea

by the artist Ingo Baumgarten

Houses and buildings are the first thing one sees, when one begins to explore a city. Outstanding landmarks stand some times for the city's official image and function as tourist attractions, but the more typical and ordinary buildings shape in their sum the general atmosphere the town.

Architecture acts as a stage or background for almost every activity, for people's life in the city. That is so common, that people do not often consciously observe their architectural surrounding, that they take it for granted. However, architecture is not only a background and stage for human activities, it massively defines the conditions of life for its inhabitants and users. "People shape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shapes people", is a widespread statement summing up the effect of architecture on society.

Architecture also expresses something about the techniques, the ideas and ideals, of the time of its construction. Its style is referring to the general culture of that time, and the particular design reveals the individual ideas, desires, wishes and visions of the architects and their commissioners.

Therefore, I have often chosen architecture or architectural details as motives for my paintings.

In Seoul, various different forms of architecture exist: There are perfect ap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cept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as well as (still a few) old traditional houses. However, because Seoul is a very dynamic city, those old constructions are in poor condition and may

## "주택 住宅" 한국의 집

인고 바움가르텐

주택과 건물은 도시를 탐색하는 이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들이다. 눈에 띄는 랜드마크적 성격의 건축물은 도시의 공인된 이미지를 좇아 관광명소로 기능하지만, 수많은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건축물들은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건축은 도시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 무대 혹은 배경이 된다. 때로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건축물들을 원래부터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의식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은 단지 생활의 무대나 배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들을 규정짓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축을 하고, 건축물은 다시 사람들의 삶을 설계한다." 는 말은 건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담겨 있다.

건축물은 지어질 당시의 기술력과 개념, 이상 등을 반영한다. 건축의 스타일은 그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를 대변하며, 특정 디자인은 개인의 발상과 요구, 소망과 통찰 등을 드러낸다.

그런 이유로 나는 건축이나 건축적 디테일을 내 작업의 모티브로 종종 삼아왔다.

서울에는 수없이 다양한 건축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국제적 감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현대 건축물도 있고, 오래된 전통 주택도 (그 수가 많진 않지만) 남아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내막 한도시 서울에서 오래된 건축물들은 절이거나 식당, 미술관 등으로 용도 변경될 것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낙후된 환경에 있거나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disappear very soon, unless they are temples or were transformed to restaurants or museums.

However, I developed a special interest for certain houses, which are neither very new, nor very old, but which represent in my eyes a very authentic Korean form of architecture: These are individual family homes, constructed between the 1970th to the 1990th. Those houses join traditional forms and concepts with modern ideas and materials. Western influences, for example of the American architect Frank Lloyd Wright and the Prairie School, are evident as well as traditional Oriental ones. Some forms of traditional wood-architecture are imitated in concrete; volumes and structures are often motivated more by decorative than by functional purposes, and bright bars and balustrades on the roofs, terraces and galleries emphasize the horizontal expansion of the houses. Other design ideas derive simply from ornamental geometry. The decorative elements, which are applied in a rich and playful way, attracted my attention from the beginning.

When the Korean (upper) middle class built these homes, Korea had just begun to prosper. This



City views, Friedrichshafen each 140 x 120cm, 2005



Staying for six month in an artist residency program in Friedrichshafen, in Southern Germany, Baumgarten depicted those ordinary houses, which were typical for this city and for German suburbs in general.



나는 그리 새롭지도 않지만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은, 그러나 나의 눈에는 진정으로 한국적인 건축양식을 대변하는 듯 보이는 어떤 집들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197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지어진 가족을 위한 개인 주택들이다. 이 주택을 보면 전통적인 건축 형태와 개념이 모던한 발상과 재료에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택들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로이드라이트 (Frank Lloyd Wright) 와가 주도한 프레이리 학교 (Prairie School) 건축 양식이나 동양의 전통 건축 양식에 영향 받았음 이 명백해 보인다. 전통적인 목조 주택에서 사용되었던 구조들은 콘크리트로 대체되어 모방되었고, 집의 크기와 구조는 종종 기능적 목적에 의해서라기 보다 장식적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 빙과 테라스에 위치한 눈부신 흰색의 난간은 집의 수평적 확장성을 강조하며, 여타의 디자인적 요소들도 단지 기하학적인 장식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건축적 사치와 유희를 보여주는 이러한 장식적 요소들은 처음부터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것들이었다.

한국의 중산층들이 이러한 주택을 짓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이 막 경제부흥기에 진입하던 때였다.



Original houses, typically with garden, wall and gate



Changing cityscape, Seogyodong, Seoul, 2010 and 2013



Modified houses: balconies are converted and and stairs added, car parkings replace gardens and walls and gates.



Covered houses: Added facades aim to hide the original architecture.

architecture conveyed by its decorative style a message, which architects and commissioners of the time could certainly identify with. It expresses the vision of a modern Korea, linked to it's traditions and open to new possibilities!

However, 20 to 30 years after their construction those houses were no longer appreciated the way they once were. The style became unfashionable; and therefore, they are no valuable status symbols anymore for their current owners or inhabitants. Due to the strong dynamism of the city Seoul, most of those buildings were strongly transformed and remodeled, if not demolished.

Since the generous and luxurious atmosphere of those houses attracted me, I studied this architecture carefully, in order to draw and to recompose it in my paintings. I enjoyed the playful creative beauty of the original houses, but I also discovered the big changes many of those houses had been gone through.

Often, the generous outdoor spaces like terraces and balconies were converted in order to increase the usable interior-space.

Originally built as homes for one family, new owners split up the space of the houses into different apartments. The afterwards added external stairs, giving access to the upper floor flats, indicates that transformation.

Some companies have completely remodeled the houses they use. Gardens became parking lots, and new facades cover and hide the original character of the architecture.

In recent years, those houses are more often demolished and replaced by buildings, which are more profitable, simply designed and typically sit on stilts to offer maximum parking space.

주택의 장식적인 스타일은 당시의 건축가나 건축주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통과 새로운 가능성에 뿌리박은 근대화된 한국에 대한 비전이었다.

그러나 이삼십 년 후 이 주택들이 한 때 표방했던 의미들은 퇴색되고 말았고, 현재의 거주자들에게 건물의 스타일은 낡고 촌스러운 것일 뿐, 더 이상 어떤 가치나 지위의 상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의 강력한 역동성은 이러한 건축물들을 파괴 시키거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주택이 가진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매료된 이후, 나는 그것을 그대로 또는 재구성하여 화폭에 옮기기 위해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그 결과 주택이 원래 갖고 있는 유희적이고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었던 한편, 많은 집들을 거쳐간 커다란 변화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많은 경우 테라스나 발코니와 같이 큰 면적을 차지하던 외부 공간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공간으로 개조되었다.

원래 단일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이었던 집들은 새로운 소유자에 의해 여러 가구로 쪼개어졌다. 건물 밖으로 나있어 위 층으로의 독립된 길을 안내하는 계단이 그러한 변화를 말해준다.

어떤 회사들은 이 주택들을 그들의 용도에 맞게 완전히 리모델링하였다. 당장은 주차장이 되었고 새로운 파사드는 주택이 가진 원래의 모습들을 모두 가려 버렸다.

최근 몇 년간 주택들은 더욱 빠르게 철거되었고 기둥 아래쪽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 단순한 디자인의 상업용 건물들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The original architecture of these houses was intend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luxurious abundance, ease and comfort. It expressed the ideas of tradition, progress, hope, optimism and belief in a good and better future. For the original building owners, these ideas had been evidently worthy of expression by the applied means, while for later owners it did not, and they often strongly modified or destroyed the buildings.

The current lack of appreciation for this architecture seems to show also a lack of appreciation for the ideas it once represented. Of course, there are various functional, technical and economic reasons for all the changes. However, it is also clear, that the original style of those houses grew out of fashion and apparently, the ideals suggested once by the design, have faded too!

Thinking about the abandoned ideas of that outmoded Korean architecture brings up some nostalgic and even romantic feelings.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European romanticism arose from the experience of tragically failing ideas: The French revolution started with the aim to implement the positive humanitarian ideals of the Enlightenment and resulted in terror and war all over Europe. This experience led intellectuals and artists to realize, that they could never reach those lofty ideals, and left them yearning for their lost goals.

When Korean people look at my paintings, they will recognize this architecture. That might arouse some personal memories and experiences in relation to the motives, and maybe some will even think about their own attitudes towards the motives of the paintings and ideas related to them.

People without any relation to these buildings, can still enjoy the aesthetic of the paintings, their composition and colors.

예전의 주택들은 풍요와 고급스러움, 안락함 등의 분위기를 표현하려 의도하였고 전통과 혁신, 희망과 낙관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 등의 가치를 담고자 하였다 당시의 주택 소유자들은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러한 생각들을 자신의 집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나 후대의 소유자들은 그렇지 않았고 주택의 모습은 사라지거나 바뀌어만 갔다.

최근 점점 사라져가는 주택의 모습은 그것이 한 때 가졌던 가치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다양한 기능적, 기술적, 경제적 이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옛 주택의 스타일이 요즘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그것이 추구했던 이상들이 퇴색해버렸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한국의 건축양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때로 과거에 대한 향수나 낭만적 기분을 자극하기도 한다.

19세기 초 유럽의 낭만주의는 인간 이성의 비극적 실패로 인해 야기되었다 계몽이라는 인도주의적 이상을 목표로 시작되었던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역을 테러와 전쟁으로 치달게 했다. 이러한 경험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로 하여금 고결한 이상향에 절대 닿을 수 없는 현실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그리움을 깨닫게 해주었다.

한국인들은 내 그림을 볼 때 이 건축물들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아챌 것이다. 그림 속 주택의 모습은 그것과 관련된 개인적 추억이나 경험을 떠올리게 할 것이며, 그림을 감상하는 자신들의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림으로 표현된 건축물의 구성이나 색감 등의 심미적 요소들을 통해 충분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modelling of "jutaek" houses



before

after